

◆ Libraries in America

효율과 合理의 思想

—아메리카의 圖書館 事情—

金 世 翊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I. 序言

필자가 미국의 도서관을 두루 살피게 된 것은 1964년 말부터 1965년에 이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7, 8년전의 일이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북부와 남부 일대여서 서부미국에 산재하는 도서관은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out of date한 것이며 지리적으로는 제한된 지역이다. 필자의 전문과 견해는 그런뜻에서 전체적인 정확성을 기하지못할것이기도 하나 그 후 듣거나 읽은 것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이 글을 쓰기로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미국의 경우 더욱 절실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사회는 엄청난 변모를 거듭했다. 도서관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 도서관의 기계화(Library automation)문제가 거의 보편화되고 엄청나게 불어나는 도서관자료의 수, 그리고 자료형태의 다양화 도서관 조직 관리의 근대화 뿐만아니라 도서관학교의 내적 외적인 변화 즉 학교의 명칭문제는 물론이고 교과과정의 세신과 변모 그리고 필자가 있을 때 만해도 사서의 수적부족때문에 졸업하기 몇달전부터 각 도서관에서 학교에 직원을(때로는 관장 자신이) 파견하여 새 사서를 초빙해 갈려고 경쟁적인 현상을 보였으나 지금은 사서의 취직난이 극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미국도서관의 변화는 원하건 원치 않건간에 그 「템포」가 술가뿐 지경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적인 변화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된다. 생각해 보면 도서관의 그와같은 변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1888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사이에 미국 「켈셀베니어」대학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된 「메소포타미어」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니플」 도서관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서관의 역사는 6~7,000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 긴간세월동안 도서관은 끊임

없었던 변화를 거듭해 왔다. 「니플」도서관이 지하에서 발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료가 점토판(clay tablet 粘土板)이어서 수천년 전이어 낼 수 있었던 까닭이며 「이지프트」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고대 도서관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 자료가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견디기 어려운 「파피루스」였기 때문이다. 이 점토판과 「파피루스」의 도서관 형태에서 중세기의 Chained Library를 거쳐서 현대의 도서관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속에서 도서관의 변화는 끊임없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우리는 이유는 이와같은 의형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필수품으로서의 도서관 시민 생활과 밀착된 도서관, 그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하는 도서관, 도서관 없이는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시민사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와 대비시키면서 도서관의 왕국 미국의 도서관의 본질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美國의 도서관

A. 巨大國家의 도서관

미국은 거대한 나라다. 세계를 한바퀴 돌고 나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의 거대성이었다. 높은 빌딩이나 넓은 고속도로 풍부한 소비생활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거대한 차륜(車輪)같이 「에벨기」에 걸쳐있듯이 가동되는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정이나 사회가 가지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면서도 다른 나라가 도저히 따를수 없는 힘을 지닌 나라다. 이와 같은 나라의 도서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골이나 도시의 어떤 분관 같은 것은 사서 2,3명 밖에 없고 장서량도 10,000권 내외의 작은 도서관도 허다하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스케익」이 엄청나게 크다.

전국적인 도서관수만 보더라도 공공도서관만도 7,257개다. (1965년도) 좁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공공도서관에만 투자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4억불이 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만 하더라도 2억권이러라고 한다. 여기에는 각종 특수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 도서관의 이와 같은 수량적 거대성에 대하여 위축될 필요는 없을것 같다. 국력의 차이 도서관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회조직체계의 차이점 등으로 미루워 볼 때 이런 현상은 불가피한 격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정부나 미국도서관에 대하여 연방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전체가 도서관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관심과 호의를 가지는 근본적인 사회적 분위기며 또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겠끔 노력했던 미국 도서관 자체의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다.

미국 사회는 어디든지 식료품을 파는 「스파마켓트」 없이는 살 수 없드시 공공도서관 없이는 시민사회가 성립될 수 없겠끔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회구조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 안다. 「일리노이주」의 어느 작은 마을의 공공도서관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참여의식은 참으로 놀라웠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으로서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2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마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대 교대로 도서관 일을 도와 주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대출사무나 목록봉사 청소 등의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하고 있었고 또 그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위원회가 매주 열려서 그 도서관이 보다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 주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무보수며 구성「멤버」도 시골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었다. 이와 같은 풍토가 조성되기에는 상당한 세월과 노력이 있어야 했겠지만 미국의 도서관이 이처럼 발달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주민과 도서관의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 되었다.

B. 圖書館法과 規準

미국의 지방 자치제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이며 각 주 정부의 자치성 뿐만 아니라 그 주 안에 있는 도시나 마을의 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국가적 규모의 도서관법 같은 것은 없고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적 기준도 주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1876년에 유명한 멜빌 듀이(Melvil Dewey)등의 선각자에 의하여 결성된

ALA는 미국에 있어서의 근대도서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도서관계에 대해서도 선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산재한 수백개의 도서관 학교에 대한 인정제도 같은 것은 ALA의 권위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다. ALA에 의하여 인정된 도서관학교가 가지는 유리한 조건으로 보아 미국도서관협회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워 볼 때 ALA가 작성한 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가지는 비중은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그것보다 도서관에 관한 한 절대 우위에 있음은 물론이다. 1921년에 ALA는 평의회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것이 1943년과 1948년에 개정되었다. 1956년에는 「공공도서관봉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결정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미국의 도서관봉사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작성하는데 지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1956년 6월에는 미국 연방부에 의하여 「도서관진흥법」이 결의 통과되었다. 비록 이것은 연방정부에 의하여 결의 통과된 법률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 도서관법 같은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현재 공공도서관의 봉사를 받고 있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받고 있는 농촌지방 구체적으로는 인구 1만미만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미국국민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봉사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재정적 원조를 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봉사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이와 같은 ALA의 기준도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측면적 노력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계속 개정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농촌제일주의 사회의 합리화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C. 도서관의 기계화

Library automation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에서 기계가 도입되어 그 정리과정이나 봉사과정에 상당한 변화와 향상이 있는 것도 우리의 견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화라는 것도 오늘날 들연히 나타난 문제는 아니다. 작게는 차정메신(대출기계)을 비롯하여 복사기계 심지어 Conveyer나 lift등도 기계화의 범주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화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것은 도서관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문제다. 많은 미국의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되

어 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자계산기 때문에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이나 조직이 변화되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본시 전자계산기는 도서관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다. 다만 도서관업무의 성질상 「컴퓨터」가 효과적인 일울 어느 정도 감당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도입해 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컴퓨터」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드시 만능의 기계가 결코 아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명령한 것 밖에는 못한다. 비록 그 성능이 놀람기는 하나 인간이 하는 일을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다 해 내지는 못한다. 가령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와 다른 여인의 얼굴을 구별해 내지만 「컴퓨터」는 그런 재주는 없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는 짓척이 어린아이의 지능보다도 못한 면도 있다. 미국같은 능률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쓰고 있을 따름이다. 「피어스 버틀러」(Pierce Butler)는 「도서관학은 의학이나 교육학처럼 그 주관적 성질의 모든 것을 사상(捨象)함이 없이 과학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드시 기계가 도서관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도서관봉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를 도입하는 때는 아무런 의의는 없지만 오늘 날 우리 나라의 도서관계의 일부에서 논의되드시 도서관의 기계주의 일변도사상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은 보잘것 없는 것이라던지 기계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사서는 무능하다던지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에 그런것이 적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던지 하는 등의 소박한 사대주의는 한국도서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못된다. 우리가 미국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의 영향을 깊숙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의 도서관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사는 장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엮어진 것이다. 적어도 근대도서관사만 하더라도 1900년대초(1903년 설과 1906년설이 있다)부터 형성되어 왔다.

미국의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의 위대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은 미국적 견해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한국의 도서관을 그와 같은 미국적 견해에서만 볼려는 일련의 경향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편협한 국수주의도 아니고 배타적인 사고나 자기합리화같은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사회구조나 문화사적배경 한국민의 의식구조 같은 것에 근거를 둔 현실적 견해이다. 도서관같은 문화적 사업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에 싹터오르는 풀같은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하겠지만 상상한 개념만 본따서 그것만을 유일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Ⅲ. 結 語

필자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그 일면만 언급했다. 대학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와 대비하여 생각할 것이 허다하지만 이미 배당된 지면이 끝났다. 한나라의 도서관을 국가적전지에서 볼 때 언제나 그 나라의 공공도서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우리 한국의 도서관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형극의 길을 걸어왔고 이 고달픈 역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도서관사는 우리들에 의하여 엮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도서관인들을 슬프게 하는 요소가 의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산재해 있다.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현존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전달해 주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이며 우리 도서관인은 그 대행인이며 기수(旗手)라는 자부심을 잠시라도 잊을수가 없다. 이 고난의 역정을 넘어서서 노력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기약하면서 불퇴전의 용기와 의지를 다짐하는 바이다.

統一위한 救國英斷 너도 나도 支持하자

몽쳐서 憲政維新 힘 모아 平和統一